



보도 일시	2022. 9. 3.(토) 14:00	배포 일시	2022. 9. 3.(토) 14:00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충기 (064-727-0367)
		담당자	전문관 한경훈 (064-727-0367)

9.5.(월)~6.(화) 북상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

- 제주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강풍·풍랑·폭풍해일 주의
 - 9.6.까지 총강수량 100~300mm(많은곳 400mm↑, 산지 600mm↑)
 - 최대순간풍속 180~215km/h(50~60m/s) 매우 강한 바람
 - 제주도전해상 5~10m의 매우 높은 물결



[9.5.~6. 제11호 태풍(힌남노) 진로 및 기압계 전망]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목)은 9.5.(월) ~ 9.6.(화)에 제11호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도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태풍 영향에 의한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태풍 현황 및 전망]

- (현황)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9.3.(토) 09시 현재, 매우 강한 태풍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3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8km의 속도로 느리게 북북서진하고 있으며,
- (예상 진로) 9.5.(월) 아침에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 9.6.(화) 아침에는 부산 남서쪽 약 70km 부근 육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기는 6일 새벽에 중심기압 945hP, 최대풍속 45m/s의 매우 강한 강도로 제주도동부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변동성) 현재 태풍의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태풍의 이동속도와 강도, 경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 강수량과 강풍구역도 변동성이 크겠다고,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상 전망]

- (강수) 오늘(3일)과 내일(4일)은 태풍의 북쪽 전면부근에서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모레(5일)부터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점차 비의 강도가 매우 강해지면서 글피(6일)까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 특히, 태풍이 제주도에 영향을 주는 모레(5일) 오전부터 글피(6일)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50~100mm 이상 매우 강하고, 총 강수량은

400mm(산지 60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 예상 강수량(3일~6일) 〉

제주도 : 100~300mm(많은곳 400mm 이상, 산지 600mm 이상)

- 하천변, 개울가 등 침수 및 범람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 있으며,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금지
- 저지대 고립 및 침수지역 감전 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 하수도와 우수관, 맨홀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및 접근 자제

□ (강풍)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4일)까지는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 특히, 태풍이 영향을 받는 모레(5일)부터 글피(6일) 사이에 제주도에는 최대순간풍속 180~215km/h(50~60m/s)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다.

- 공사장, 비닐하우스, 현수막, 풍력발전기, 첩탑 등 시설물 점검 관리 철저
- 주행 중인 차량은 강풍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감속운행 및 안전거리 유지
- 시설물 파손과 간판, 나뭇가지, 깨진 유리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
- 야외 작업자(건설 현장, 배달업 등)의 안전사고 유의
- 과수 낙과와 농작물 쓰러짐 등 피해 대비

□ (풍랑) 현재,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3일)은 바람이 35~60km/h(10~16m/s)로 불고 물결은 2.0~4.0m, 내일(4일)은 바람이 더욱 강해져 50~95km/h(14~26m/s)로 불고 물결도 3.0~8.0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겠으며,

○ 특히, 모레(5일)~글피(6일)는 바람이 70~145km/h(20~40m/s)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5.0~10.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선박이나 양식장 등 해상 시설물 피해에 대비한 각별한 준비와 각종 선박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주문하였다.

□ (폭풍해일) 태풍이 차차 접근하면서 기상조와 높은 파고가 더해져, 내일(4일)부터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 침수피해와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기상조 : 태풍 또는 저기압이 통과할 때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기압이 낮을수록 해수면은 더욱 상승함)

□ (항공·해상 교통) 태풍이 영항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당분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과 해상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 및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